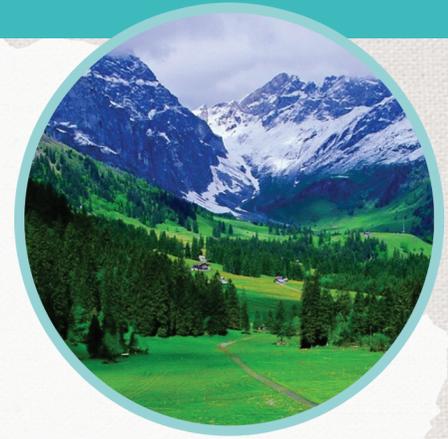


### 지리적 장점

1. 풍광이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툰호수(Thunersee), 인터라켄(Interlaken), 융프라우(Jungfrau)등 많은 관광명소들이 있습니다.
2. 취리히공항과 바젤공항에서 2시간 거리이고, 매시간 2회씩 직행하는 기차편이 있습니다. 특별히 매시간 마다 베를린에서 오고가는 기차 직행편이 있습니다.
3.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 사역 소개

1. 매일드러지는 예배와 기도시간이 있습니다.
2. 단기선교회망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3. 기독교인들의 휴양과 영성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집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아프신분들이나 심신이 지치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각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교역자 세미나, 선교사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또는 부흥집회)



스위스와 유럽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

# 베아투스 수양관

Beatus discipline center

### 수양관 운영계획

1. 수양관 유지와 운영을 위해 인터라켄을 찾는 여행자들을 위한 민박시설을 운영합니다.
2. 세미나 시설을 임대합니다.
3. 후원자들을 모집합니다.



〈베아투스 수양관〉의 후회지는 위대한 영적유산이 간직되어 있는 스위스 인터라켄에 있습니다.

〈베아투스 수양관을 통한 사역의 비전〉은

1. 인터라켄에서 기도의 불을 재점화시키는 일을 목표로 합니다.
  2. 스위스와 유럽교회의 영성회복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한 순수신앙회복운동과 그 열정을 회복케 함을 목표로 합니다.

### 스위스와 유럽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하는 스위스의 매력은 사계절 눈덮인 알프스의 하얀 봉우리들과 아기자기하게 가꾸어진 아름다운 농촌의 자연경관 그리고 파란하늘을 배경으로 뾰족뾰족 솟아있는 고딕식 교회건물의 첨탑들과 유니폼처럼 통일되어진 빨갈고 예쁜 독특한 지붕들입니다.

특별히 도시마다에는 그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웅장하고 찬란한 교회건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과거 이곳에 위대한 기독교의 문화와 역사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주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국민들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정직, 근면,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기적으로 교회예배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유럽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교회들은 쾰빙글리, 칼빈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신앙유산을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적인 삶과 문화가 존속하고 있긴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남겨준 복음적인 신앙과 신학 그리고 그 뜨거움과 간절함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스위스의 교회를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교회를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기도 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스위스의 교회가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그 순수함과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 베른

● 인터라켄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의 불이 타오르게 된 배경에는 인터라켄에서 시작된 멈추지 않는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주후 6세기 아일랜드 선교사 베아투스(Beatus)가 스위스로 파송되어 당시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인터라켄 인접지역의 주민들에서 전도활동을 하다 이곳에서 죽어 툰 호숫가 동굴입구에 묻혔습니다. 그는 사후 성자(Saint)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그후 그를 본받고자 하는 많은 순례자들과 수도사들이 인터라켄 지역을 찾게 됨으로써 그의주 사역지인 툰(Thun)과 인터라켄(Interlaken)은 성지가 되어집니다.

1130년경 한 수도사에 의해서 인터라켄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그후로 부터 사백년간 인터라켄 전지역이 수도사들의 기도의 처소가 되어집니다. 수많은 수도사들이 이곳에서 밤낮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수고는 스위스와 스위스의 교회가 종교개혁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했습니다.

● 루체른

인터라켄에 기도 의 집이 세워진지 정확히 사백년 되던해에 취리히의 종교개혁자인 초빙글리(Zwingli)가 카톨릭군대에 의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그후 프랑스의 개혁자인 젊은 칼빈(Calvin)이 제네바에 입성하여 초빙글리의 종교개혁을 계승하고 완성합니다. 당시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칼빈이 설립한 <제네바 아카데미>에 와서 칼빈의 개혁신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가 그들의 교회를 개혁하는데 앞장섰습니다.

● 생모리츠

그러나 지금은 스위스와 유럽의 교회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들을 깨워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 기도입니다. 먼저 스위스의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초빙글리와 칼빈의 신앙과 신학을 되찾도록, 그들의 열정과 사명감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다음 다시금 스위스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을 깨우는데 앞장서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옛날 한 수도사에 의해서 인터라켄에 세워진 작은 기도 의 집이 결국 인터라켄 전체가 기도의 처소가 되게 했고, 이곳에서의 사백년간의 기도의 수고는 마침내 스위스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운동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이 이슬과 비를 머금어 바위속 깊은 곳에 가는 물줄기가 되게 하고, 모아진 바위속 가는 물줄기들이 함께 터져나와 폭포가 되게 하고 강이 되게 합니다.

<베아투스 기도운동>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와 커토의 수고가 쌓여 다시금 스위스와 유럽의 교회에 개혁의 폭포를 터트리게 하고, 그 생명수가 온 세계에 공급되게 하는데 있습니다.